



| | |
|---------------------------------------|--|
| 코스피 2464.16 (+20.18) | 코스닥 854.93 (+4.08) |
| 금리 (연고채 3년) 2.28 (-0.03) | 환율 (원/달러) 1073.10 (-7.80) (10일) |



[해설]
혼돈의 회계
부메랑 된 IFRS
03

한국GM에 72억 달러 투입, 亞太본부 국내 설립

정부·GM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

GM, 64억 달러 부담... 대출금 28억 달러 출자 전환
산은, 7.5억 달러 지원... 지분매각제한·비토권 확보

정부와 GM(제너럴 모터스)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GM의 기존 대출금 28억 달러를 출자 전환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43억 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등 총 71억 5000만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GM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부품업체 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정부는 1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지원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GM은 한국GM의 기존대출금 28억 달러는 올해 안에 전액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 또 한국GM의 설비투자 등에 28억 달러를 지원하고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에 8억 달러를 지원 후 출자 전환하는 등 36억 달러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올해 안에 한국GM의 시설투자용으로 모두 7억 5000만 달러를 출자해 GM의 지분매각제한, 비토권(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견제 장치를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1억 5000만 달러 중 GM은 64억 달러, 산업은행은 7억 5000만 달러를 각각 부담하기

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GM과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강도 높은 실사 결과,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 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브리핑'에서 한국 GM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선되면서 영업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은은 11일 GM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약서(LOC)를 발급할 예정이며 이달 18일 산은과 GM간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가 체결되면 올해 안에 7억 5000만 달러를 출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산업부와 GM은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GM은 한국GM 위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태지역본부를 우리나라에 신설

하고 한국GM을 아태지역 생산·판매·기술개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태지역본부는 중국을 제외한 아태지역 사업을 총괄한다.

아태지역본부는 아태지역 생산 기획을 총괄하면서 본사의 제품 기획과 신차 물량배정 과정에도 참여하는 만큼 우리나라에 설치되면 한국GM의 장기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부품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GM을 돕기로 했다.

社告

메트로경제가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언론계 주인공을 찾습니다. 2002년 5월 창간한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올 3월에는 국내 언론사 중 유일하게 유·무료신문 동시발간 체제에 돌입한 메트로신문이 유능한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역에서 매일 아침 시민들에게 <메트로>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창간 16주년인 2018년을 맞아 관공서·기업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3월 5일 유료신문인 <메트로경제>를 직접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메트로신문은 신문의 격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유능한 경력기자를 모집합니다. 16년 역사의 메트로신문과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 산업 / 금융 / 유통 / 정치분야 취재기자
- 모집내역 ①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② 모집인원 : 0명
- ③ 응시자격 : 해당 분야 경력 3~10년 사이
-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지원서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지원서에 사진부착)
-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 ③ 기명기사 3건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 2018년 5월4(금) ~ 2018년 5월18일(금) 오후 6시까지
-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5월 18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주)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본지 웹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문의 : 경영지원실 (02-721-9826)



참사 4년여 만에 바로 선 세월호

지난해 4월 목포신항에 거처했던 세월호가 1년 여만에 선체 직립에 성공했다. 침몰 4년여 만에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바로 서게 된 것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삼호중공업은 10일 낮 12시 10분 세월호 선체를 94.5도까지 바로 세워 선체 직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만톤 급 해상크레인으로 선체를 세우는 작업을 시작한 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오전 11시 58분 90도 직립에 이어, 낮 12시 11분 94.5도 직립을 마치고 작업 종료로 선언했다.

/뉴스

김상조 "일감몰아주기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10대그룹 간담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개최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일시적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손진영 기자

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감몰아주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순환출자 해소 등 기간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 노력에 대해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개선사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순환출자 해소 등 기간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 노력에 대해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개선사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의 출자 구조 변화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기본적 출자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고, 결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이 늦어질수록 한국 경제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렇다고 정부가 밀어붙이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며 선택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삼성 대표로 참석한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말했으며, 윤 부회장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DGB금융 회장에 김태오 내정 임추위 경북고 인맥 등에 엮다

DGB금융지주 차기 회장에 경북고 출신의 김태오(64) 전 하나HSBC생명 사장이 내정됐다.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DGB금융에 또다시 '학연 우선주의'가 우려되고 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경북고 동문이었다는 점에서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오 DGB금융 회장 내정자

DGB금융지주는 10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김태오 전 하나HSBC생명 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번〉 김 내정자는 "우선 소통과 화합으로 조직안정화에 주력하고 정도 경영을 통해 고객과 주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 및 가치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디지털 금융 강화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지역 기반을 넘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로 명실상부한 종합금융그룹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1954년 경북 왜관 출신으로 경북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